

엑스포과학공원 신규 노외주차장 ‘부실투성이’

장애인주차장 노면 경사 심해 휠체어 등 미끄러져 ‘아찔’... 대전도시공 “법적 문제 없다”



▲ 26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신규 노외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문제에 대해 동행취재에 나선 한발장애인생활센터 A소장이 장애인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기만히 있는데 경사가 심해 순식간에 저절로 미끄러지는 모습.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신규 노외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부실시공 흔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본지 2018년 12월 5일자 1면)

특히 이 주차장은 지난해 본지가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관계기관에서 최근까지 아무런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무사안일로 일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신규 주차장은 대전마케팅공사가 대행사인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해 엑스포기념관 앞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부지 일원에 공사를 맡아 현재 노면 포장에 마친 상태다.

또 주차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의 총면적인 60만㎡의 1%인 6천㎡ 부지를 확보해 모두 200여면 규모의 주차면을 갖춘 것으로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엑스포 재창조사업에 맞춰 오는 10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완공을 앞둔 주차장은 물론 요금정산소, 자전거 거치대 등 부대시설 등이 이용객들의 편

의를 무시한 채 엉망으로 건설됐다는 점이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26일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차장 노면은 육안으로도 매우 위험하게 보일 정도로 노면의 경사(구배)가 심했다.

더욱이 이러한 공사 탓에 장애인주차장 노면은 경사가 심해 장애인들이 이곳을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당초 주차장의 건립과정에서부터 현황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차장 높이(엘리베이션)가 공정에서 무시된 채 주차장 경사가 급경사로 시공돼 주차장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이곳 주차장의 지표면 수평 기초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설계와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부실시공 투성으로 공정을 진행했지만 단 한 차례의 설계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성된 노외주차장과 엑스포기념관 주차장 중간에 설치된 경계석사이의 주차장 노면경사가 서로 다르게 시공돼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 이를 실험해보기 위해 이날 오전 기자와 동행 취재에 나선 한발장애인생활센터 A소장은 장애인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기만히 있었는데 경사가 심해 순식간에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차량들의 통행이 오고 가는 실제 상황이라면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단다.

A소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러한 장애인주차장 시설은 없을 것”이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 장애 도구를 많이 지참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경사가 심하면 어떻게 주차장을 이용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A소장은 “이곳 장애인주차장은 당초 설계부터 시공까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앞에 경계석들이 깔려 있어 통행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엑스포기념관 내부 역시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이 엉터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급경사의 전면 재시공이

없이 그대로 주차장을 운영 할 경우 주차장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곳 주차장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곳은 호텔ICC가 인근에 위치해 각종 행사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장 진입시 요금 정산을 위한 차량들로 정체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 혼잡이 불 보듯 뻔하다.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역시 이를 이용하려면 주차장 입구로 통행 할 수 밖에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차하려는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대전마케팅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방관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 B씨(41·대전시 만년동)는 “대전의 상징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신규 노외주차장이 법을 무시한 채 엉망으로 공사했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가 진행된 만큼 이번 공사의 책임자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대전엑스포기념관 신규 노외주차장 노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상주차장과 달리 노외주차장의 경우 아무런 경사도 법적기준이 없어 문제는 없다”면서 “노외주차장 바로 옆 버스정류장 도로와 단차를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도로가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외주차장 경계석과 자전거 거치대 등 문제는 향후 대전마케팅공사 시설팀이 문제가 있다면 판단되면 향후 시정조치할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가 현 노외주차장이 문제점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당초 마케팅공사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소통의 일상화 시민주권시대 개막”

김정섭 시장, 시민과 함께 소통신바람나는 공주민들 것

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새 시대를 향한 시민의 바람을 안고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이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시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선 7기 1년 결산보고를 통해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에 주력했다”며,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로의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선 7기 비전을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로 정한 김 시장은 지난 1년 간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 7기 100대 공약 △신바람시정특약(Talk) △정례브리핑 실시 등 시민 참여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다.

또한 공주시 최초로 정안면장을 시민추천제로 정했으며, 주민 참여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시민 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요로운 상생경제라는 가치 아래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화동도

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보 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대폭 확보해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3개소를 보유한 국내 대표 세계유산도시로 발돋움했으며, 박찬호 기념관 및 골목길 조성, 충청강역 포정사 문루 재현,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 명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어르신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75세 이상 시내버스요금 무료 △경로당 운영비 인상 △행복택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했으며,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는 소통으로 일군 시민주권 시대를 바탕으로 향후 3년의 시정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 확대와 공주형 주민자치제도 확립,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통해 소통 시정을 더욱 공고

이와 함께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와 공주문화재단 설립, 법정 문화도시 지정,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등 중부권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한편, 고품격 관광지 내 호텔 유치, 공주하숙마을 활력거점 조성, 세계유산 방문자 센터 조성 등을 통해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내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안정적 추진, 전통시장 지속 육성, 공주페이 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본격 운영, 건강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한우경매시장 조기 이전, 농산물거점가공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소통이라는 가치와 함께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공주민의 매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바람을 함께 불어넣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홍성군, 국가브랜드 대상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 수상

충남 홍성군은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시상식으로, 대한민국 전 산업군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강화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홍성군은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라는 강점을 살려 유기농 귀농학교,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귀농귀촌으로 하여

금 건강한 귀농귀촌과 환경을 생 각하는 귀농귀촌을 알리며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진행으로 '2019 국가브랜드대상', 귀농귀촌 도시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홍성군으로 전이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집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청년농업

인 육성 등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타 지역의 귀농귀촌 선도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국가 브랜드 대상 선정은 유일하게 상품 브랜드가 아닌 지자체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9 국가브랜드 대상’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 수상을 기점으로 홍성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청남도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입니다.

충청남도의회

더민주당, 2019 마늘 수급안정대책 발표

박완주 의원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마늘농가 어려움 덜수 있을 것 기대”

충남 천안(을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은 25일 마늘값 폭락에 대비한 당정책을 개회하고, 총 3만 7천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정적립함으로써 산지가격 활성화와 적정가격 형성을 최대한 견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산 마늘의 생산량은 36만 5천톤 수준으로, 평년 수요량을 고려하면 공급 과잉량이 3만 4천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단수의 증가로 인한 현 생산량을 감안할 때, 산지가격은 전년도 가격인 2,000원보다 낮

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평년 생산비가 보장되는 산지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약 1만 2천톤 수준의 시정적립을 시행할 것을 계획한 바 있으나, 향후 시세의 불확실성과 시장불안 심리로 인해 산지가격 부진과 거래가격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이날 당정책을 통해 당초 정부대책 1만 2천톤에 2만 5천톤을 추가하여 총 3만 7천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정적립함으로써 산지가격 활

성과와 적정가격 형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판교가 불확실한 비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난지형(대서·남도) 마늘 1만 8천톤을 추가 구매·비축하여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으며, 농협에 무이자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산지조합이 계약재배 물량 6천톤을 추가 구매하여 출하조건 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역간 씨마늘 교류 등을 확대하여 수입산 종자용 씨마늘이 추가 1천톤 이상 국내산 마늘로 대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정부·지자체·농협 등 민관협력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대형유통업체 특권행사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도 발표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선제적 조치로 마늘 농가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마늘 수급안정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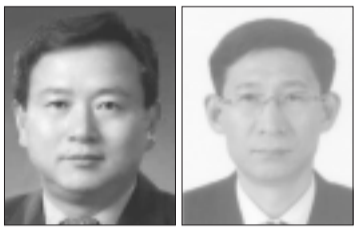
국회=김성구기자



대덕구의회, '대덕구 차매안심마을 기억올타리 재호점' 선포식.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의원들은 26일 동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대덕구 차매안심마을 기억올타리 제1호점(별1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차매안심마을 기억올타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차매 노인과 가족을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웃과 대화, 차매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미경 의장, 박은희 의원, 이상남의원, 오동환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정원춘자치행정국장·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충남도 민선7기 1주년 맞아 정기인사 단행



[사진 왼쪽부터 정원춘·김찬배]

충남도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사 기준을 밝혔다.

인사규모는 316명으로, 3급 4명을 포함한 승진 86명, 부단체장 2명, 전보 및 전출·입 212명, 신규임용 16명 등이다.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던 정원춘 보령부시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돌아온다.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농림축산국장은 추욱 농업정책과장이 맡게 됐다.

기후환경국장은 김찬배 공동체정책관을 승진 발령하고, 해양건도 충남도를 실현하기 위해 한진선공보관을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로, 친화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운동현 여성가족정책관을 계통세계군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 공고를 실시해 한화그룹 감사총괄임원, 행정안전부 감사관을 역임한 김종영 씨를 임명했다.

보령 부시장에는 정낙준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서천 부군수에는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을 각각 발령했다. 실제 우수 공로 발탁승진자는 2명이다. 전국 최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및 전국 1위의 외투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이영석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장을 투자입지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평가관리팀장으로서 도시사공약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올리고, 환경정책팀장으로서 일하며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유치,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령 결성 및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은 양승록 사무관은 계룡군문화엑스포 지원단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태안군 발전 위한 토지활용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태안군의 천연의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태안군 발전을 위한 토지활용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26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의정토론회에서는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태안군 발전을 위한 토지 활용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의 관련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먼저 유영철 도화엔지니어링 이사는 태안군 발전을 위한 토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태안군이 수립하고 있는 군기본계획을 토대로 태안군에 적합한 개발가능지를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임형빈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적합한 태안군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문용 충남지역언론인연합회회장이자 태안신문 편집국장인 언론인으로써 태안군의 발전방향과 토지 활용방안을 지역언론인 관점에서 태안군 발전을 위한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소견이라는 주제에서 제시하였으며,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성길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태안군의 천연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태안군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방향에 대한 소견이라는 주제에서 학자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임승만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태안군 발전을 위한 토지활용방안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관점에서 태안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권혁일 충청도시기술공사 대표는 태안군기본계획항상 개발가능지 확보를 위한 인구지표 보장방안이라는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인구지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구지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환기자

“당대표·지도부에 내포혁신도시 지정 목소리 내야”

바른미래당 홍성·예산 김석현 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 충남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김석현은 25일 충남도당에서 개최한 당대표 및 지도부와 함께하는 당원 간담회에서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남 내포시에 현장 대토론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충청남도는 수도권권을 제외한 광역 시·

도 중 유일하게 대전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서 충남도민과 지역민은 이미 지정된 10개의 혁신도시에 비해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혜택, 지역발전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광역시·도마다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다방면의 공조와 더불어 산·학·연·민·관·언론·정치권·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대 토론회 협의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고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의회 행정감사 ‘시민이 행복한 아산’ 강조

김희영, 조미경, 김미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제213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보험가입 현황(3년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잘못 추진된 업무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각종 보험을 일 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아산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미경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장애인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고 지적했다.

체육진흥과 체육회 예산을 일례로 들며 “도민체육대회 선수훈련 지원비가 장애인에 3~4억씩 편성된 반면 장애인 훈련비는 한 푼도 없다”면서 “이는 바로 행정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의원은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더욱 심각성을 논하고 싶다.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어울림으로 우리 모두 소중한 아산시민으로 다함께 참여 시작점을 매년 하반기 치러질 아산시민 한마음대회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인식개선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미영 의원은 “2016, 2017년 아울란트 사업은 아산시 공영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단기적 시범사업 행태에 일관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같은 문제제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과 2019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6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선정으로 아산시 조수리부영을 활용 융복합 VR 공영콘텐츠 개발로 큰 금액이 들어간 사업인데 누구하나 아는 사람이 없다”며, “소통 없는 행정업무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으로 마감되지 않고 지속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는 물론 결과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남은 임기 동안 초심 지켜 살기 좋은 당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TV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주민 간의 원활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추구하며,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어기구 의원은 민주당 충청형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비롯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국민과 당진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려 노력한데 대해 인정받았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지키며 남은 20대 임기 동안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당진 만들기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 및 양기관 선진화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다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 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억현)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 세종시의회 4명(안찬영, 이영세, 손현옥, 차성화)과 한국법제연구원 3명(이억현, 최환용, 김윤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 대해 공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양 기관은 ▲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 학술정보 공유 ▲ 정책사무협의체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서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법규가 적기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유성구의회 “지난 1년 역동적인 구정견제 힘써”

구정현안 놓치지 않고 구정질문·5분발언·감사 통해 대안 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하경옥)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제8대 의회 전반기가 이 끌어 온 지 6월말로 1년을 맞이 한다.



지난 1년간 유성구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정현안에 대해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유성구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지방의회 전국협의회와 연대하여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았다.

또한, 회기운영은 총 9회(115일) 중 정례회 3회(65일)와 임시회 6회(50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의안은 총 175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고, 이중 약 65%인 113건을 의원발의 안건으로 추진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관련 제도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개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쳐 173건을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토록 건의하였다.

구정질문에서는 5명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13건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낱신 질의를 발송했고, 매년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는 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10건의 의견을 개진하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개 상임위원회에서 10개 분야 10명의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안건과 위원회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는 한편,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의 정활동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특히 지방자치 제도와 절차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지방자치 모의의회 체현교실(5회 82명)을 운영해 왔으며, 구 의회 방청 및 참관(18회 10명)을 통해 열린 의회를 실현하였다.

끝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자치구 의장단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투명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을 실현하여 행복 유성군을 위한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시민 10명 중 6명 “대전 現 상황 매우 심각하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민선7기 1년 맞아 대전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대전시민 10명 중 6명은 대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이 25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민선 7기 대전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이 토론회에 앞서 민선7기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 시정의 문제점으로 ‘대전시의 침체와 쇠퇴 위기 극복전략 부재’가 24.4%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준비 부족과 역량 미흡’(22.0%), ‘시정과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의 결여’(13.3%), ‘시장의 리더십 부족과 무사안일한 행정’(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상황을 도시 위기라고 보는 것에 동의한다’는 시민들이 65.2%로 압도적으로 높아 대전 시민들이 현 상황을 도시 침체와 쇠퇴의 위기라고 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 위기의 원인에 대해 시민들은 ‘세종시의 건설 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감소’문제를 26.2%로 제일 높게 보고 있다. 그 외에 ‘정치와 행정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역량부족’이 23.9%, ‘도시발전의 전략과 정책의 결여’가 19.5%, ‘교통도시, 과학도시 같은 대전의 도시 정체성 상실’이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절반 가까이 42.3%로 제일 높게 나온 가운데,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30.9%로 부정적인 응답률 26.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1/3이 넘는 34.6%의 시민들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대전 시민들은 민선7기 1년 동안의 시정 성과를 크게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체감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에 대해 절반 이상인 44.6%가 ‘그저 그렇다’라는 중립적이고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만족과 불만이 각각 14.1%와 44.6%로 불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시민들은 ‘여당의 의석 독식에 따른 견제와 균형 상실’을 23.8%로 제일 높게 지적하고 있어

시 의회의 일당독점 지배구조를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그 다음이 ‘지방의원의 비리와 부조리’가 18.0%,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1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절반인 ‘49.5%가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및 실업문제’를 중요한 선거이슈로 전망하고 있어서 내년 총선을 좌우할 주요 선거이슈는 민생·경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18.4%, ‘비핵화 문제 등 안보와 남·북한 평화문제’가 12.9%, ‘진보 또는 보수 진영의 대통합 여부’가 7.3%, ‘대전·충청권의 인사 및 행정·재정 확대론’이 4.8%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거공약 및 정책’(39.78%)을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소속 정당’(22.7%), ‘후보자의 인물’(19.96%), ‘세대교체’(11.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육동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선 7기 1주년을 즈음하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며 “더군다나 오늘 토론회에서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1년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드러나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가 일방적인 여당 비판이 아닌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토론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패널들과 풀로워 질문자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내년 총선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시정의 소동부족과 결단력 부족 그리고 허대장 리스크를 대전시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소수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전투력을 키워 집행부와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를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죄파 시민단체가 시민단체 본령으로 돌아가 지역활을 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이 여의도 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중 CTS를 이용한 자동 여론조사를 통해 연결된 41,742명 중 응답한 1,043명(후대 전화 841, 요선 RDD 202)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03% 포인트다.



노성애향공원 새단장... 오는 7월 개원

노성산 찾는 등반객들·가족단위 산책객들 발걸음 이어져

충남 논산시가 지난 2015년부터 국도시비 30억 여 원을 들여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노성산 입구의 산림 25,207㎡에 조성한 노성애향공원이 7월 초 개원을 위해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개원을 하기도 전에 갖가지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 입원에는 휴일이면 노성산을 찾는 등반객들로 북적이고 평일에도 가족단위 산책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어 논산 8경의 하나인 노성산성과 함께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전망이다.

인근에 대표적 조선시대 양

반가옥인 윤증선생 고택과 공지의 영정을 모신 노성결리사 및 노성향교가 지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더 그렇다.

더욱 새롭게 선보인 공원 내에는 애향쉼터, 풍류마당, 전통 체험놀이마당, 느티나무쉼터, 팔각정, 전통물담장, 목교, 테코로드, 산책로 등이 오밀조밀 들어서 있고 운동 효율성을 높이는 최신 건강진진 운동기구들이 짜임새 있게 구비돼 있어 노성산은 더욱 친숙한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자리매김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원 내 두 곳의 잔디공간은 작고 큰 공연무대를 올릴

수 있는 야외 무대와 조명시설이 구비돼 있어 사계절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도 손색이 없어 논산시 지역문화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초기시작단계부터 사업전반을 챙겨온 논산시산림공원과 김영선 팀장은 황명선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등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당초 예정했던 공기가 늦어진 감은 있으나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기대감으로 성공적인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대전도시철도 ‘시민단체 초청 안전체험’ 행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 참여 비상상황 대비 안전체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26일 실제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회원 20여명이 참여했고 공사에서는 안전체험열차를 특별 편성 운행했다.

대전안실련은 안전교육, 홍보 캠페인 등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안전체험열차가 출발하는 반석역에서 승강기 안전이용 방법·비상인턴폰 사용요령·물수건·화재마스크 사용법·화재발생시 승강장 탈출요령 등을 체험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전체험열차에서는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수동개방 요령·비상시 운전실을 이용한 선로탈출 방법·열차 내 화재 진압요령 등을 숙지

했다. 행사에 참가한 설계자 회원은 “전동차 안에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 줄 몰랐다”며 “오늘 배운 것을 안일한 안전 교육시 시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 “안전체험 열차 행사는 안전교육과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양이 거래돼 드리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선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4-3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세종시 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주민들에게 듣습니다”

도담동 거주 학부모·교육자등 대상 28일 설명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세종시 어린이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8일(금) 오전 10시 도담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어린이박물관의 설계 진행상황과 국내외 어린이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생활권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

고 정책 참여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박물관 기본설계는 '18년 9월에 착수되어 올해 5월에 완료되었고, 이번 설명회 진행 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제천과 증양공원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으로 계획하였으며, 1층 로비를 중심으로 각 공간이 직접 연계되도록 각 상설전시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전시는 공간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7개 공간으로 나누어 배치될 예정이다.

행복청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어린이박물관 건축과 전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박물관의 주인인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어린이박물관은 부지면적 6108㎡, 연면적 4891㎡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규모로 총사업비 330여 억이 투입되어 건립된다.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김태선 기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발전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종시 어린이박물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daejeontoday.com

● 특 ● 정 ● ●

식재료 안전관리 업무협약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7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증회 의실(6층)에서 열리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

제45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27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5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 개최



황인도 구청장= 27일 오후 1시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에서 제69주기 20차 산내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개최.

연극 관람



박용갑 Chungju시장= 27일 오후 7시 30분 선화동에 위치한 상상아트홀에서 '함께하는 문화의 날' 맞이 '꼭하고 노래하라', 신체 호와 의명단' 연극 관람.

주민정책참여단 발대식



장종태 서구청장= 27일 오후 2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민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

에너지정책 전환 전국 포럼



박정현 대덕구청장= 27일 오후 2시 한남대학교 서의관 홀에서 열리는 제2차 에너지정책 전환 전국 포럼에 참석.

감사위원회 현장컨설팅 간담회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건설관리분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6층 회의실에서 협업체계 구축과 소통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컨설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감사위원회 8명과 건설관리분부 8명 등 총 16명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건설관리분부는 공사·용역·물품구매·설계변경 등 매년 200건에 이르는 계약심사, 일감상사의 신속·합리적 검토와 감사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감사위원회에 적극 건의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전컨설팅 등을 안내하면서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대전시 이영근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현업부서와의 현장컨설팅 간담회를 적극 확대해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보고회 개최

관광도시 발판 · 소통행정 추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및 주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새바람 부는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민'의 구정 목표 아래 황인호 구청장과 800여 공직자들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고 구정의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주민과 함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진행은 황인호 청장이 직접 주요 참석인사를 소개한 뒤, 민선7기 1년 주요 성과 및 동구의 미래 발전 방안, 중점 추진 사업들

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민선7기 1년의 주요성과물로 ▲제1회 대통령 보훈축제의 대청호 벚꽃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동구8경 선정 및 식장산 전망대와 대청호 수변데크 조성 등 관광도시 발판 마련을 꼽았다.

또한 ▲나눔냉장고 무료빨래방 등 복지특화도시로의 면모 과시 ▲전통3구역, 대전1호 관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여명정당, 하하토크 등 다양한 소통행정 추진도 주

요성과물로 꼽았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기반으로 ▲대전 역사권 개발 및 혁신도시 조성 ▲철도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정산-오동신 벚꽃길-청남대 관광벨트 조성 ▲효평분교 활용한 대청호 생태관광허브센터 구축 ▲대전의료원 및 제3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 동구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뒤이어 짝꿍발표로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김보성 총장을 비롯한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역선 플랜'은 관광동구 조성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발표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난 1년 저를 믿고 묵묵히 따라와 준 직원들과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구민들이 계셨기에 지금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따매고 불굴의 의지로 동구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폰 밖으로 오락(樂) 캠프 운영

대전대학교 신학협력단이 대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17개 시·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해 각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 2019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이하 '폰 밖으로 오락(樂)' 캠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캠프는 11박 12일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과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활동, 개인 및 집단 상담, 가족 캠프,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다루는 효과성이 검증된 기숙형 캠프이다.

이번 '폰 밖으로 오락(樂)' 캠프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dj1388.or.kr) 또는 전화접수를 통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신창한 학생들은 사전 심리검사를 받게되며 치유캠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후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병배 기자

중구, 지방자치행정대상 3년 연속 수상

공약이행·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부문의 높은 평가



명성 확보 등 공약이행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예방행정 감사시스템 운영과 청렴방송 실시, 대선헌비용 등 다양한 청렴 시책추진으로 청렴성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살기좋은 복지환경, 참여하는 문화예술, 주민불편을 '바로' 해결하는 현장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 불편사항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로 수상하게 됐다.

박용갑 청장은 "이 상은 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열정을 다해온 결과로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감하며 주민이 행복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사각지대 없는 정신질환자 관리 위해 팔 걷어붙여

유성구,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불안감 최소화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와 미등록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과 함께 약물중상교육, 사회기술훈련 등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응급 상황에 대비해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성시장을 거점으로 특화사업인 '생명의 마을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생명의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신현정 유성구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성구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질환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구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825-3527-8 문의하면 된다.

박복관 기자

지하차도 외벽 타일 및 배수로 정비 실시

서구, 외벽청소 차량·고압 세척기 등 장비 동원 세척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9월 2일까지 지하차도 13개소에 대해 외벽 타일 세척 및 배수로 정비에 나선다.

구는 2019-2021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에 대해 외벽 타일 세척 및 배수로 정비에 나선다.

등으로 오염된 지하차도를 외벽 청소 차량, 고압 세척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세척한다.

세척작업 중 차선 통제에 대하여는 관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구 홈페이지와 서구 인터넷방송(SBN)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청소작업을 자제하여 차량 정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대전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업 시 안전시설 설치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 수칙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박복관 기자

허 시장, 중소기업체 찾아 '현장 목소리' 듣다

대회동 중소기업 근로자 격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오후 대덕구 대화동 중소기업체 (주)삼진정밀과 대화119안전센터, 동부여성가족원에서 여덟 번째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인 (주)삼진정밀에서 허 시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삼진정밀 대표 장과 복지시설 설치 희망하며, 대전시 각 기관에서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등을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대전산단은 조성된 지 40년이 돼 도로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며, "2021년까지 주차장 4곳을 조성하고, 북한문화센터와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허 시장은 "지역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좋은 형제기업 제품구매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삼진정밀은 1991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현재는 상하수도 밸브 업계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선정 우수기업이다.

이어 대화119안전센터를 방문한 허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허 시장은 직원들에게 대전산업단지, 대화동 주거 밀집지역 등의 소방 활동에 철자를 기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 동부여성가족원을 방문한 허 시장은 시민교육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표적인 취업 프로그램인 '제과·제빵기능사' 수업 현장을 방문해 수강생들과 어울려 빵을 만들고,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행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과·제빵기능사과정'은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태선 기자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 나눔공동체 행복운동회 참여 유성구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산하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회장 최경혜)는 26일 한밭체육관에서 대전시자원봉사협회에서 주관해 진행되는 행복운동회에 원신흥동나눔공동체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대덕e로움 홍보 이젠 대학생이 나섭니다

대덕구, 한남대 학생 구성된 홍보단 출범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6일 구청 증회실에서 오는 7월 5일 출시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 2019. 6. 26. (수) 17:00 발표식을 가졌다.

대학생 홍보단은 대덕e로움 카드 발급 안내와 홍보, 대교(Daeco) 맥주페스티벌 행사 시 현장발판 지원, 특별가맹점 모집,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홍보단은 대덕구와 한남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송희석)이 현 장실습 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

을 맺고, 행정업무 실습교육을 받은 대학생으로 구성했다.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학점과 실습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송희석 단장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역화폐 대덕e로움 홍보마케팅, 다양한 행정지원업무 수행을 통해 살아있는 행정 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덕e로움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홍보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청년이 움직이는 도시가 진짜 살아있는 도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과 대학생 홍보단 출범은 젊은 도시대전, 대덕e로움을 통해 대전경제의 지도를 바꾸는데 있어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제 대덕e로움은 통장·구민기자·소상공인·청소녀에 이어 대학생까지 홍보단에 가세함으로써 모든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전국최초 영농폐기물 수거전담반 운영

청양군, 2인 1조로 구성... 전용 집게차(5톤)를 동원해 순회하면서 폐부직포·폐농약병 등 처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최초 영농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운영,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 계획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수거반은 전용 집게차(5톤)를 동원해 청양군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폐부직포, 폐차광막, 폐농약병 등을 처리하게 된다.

청양군은 제조제 사용량 감소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사용 부직포, 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품 농업인의 경우 영농폐기물의 부피가 크고 무거운 탓에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군은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15년부터 마을별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22곳을 설치하는 한편 영농폐자원순환센터(3210㎡)를 건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농 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운영, 군내 영농

폐기물 처리효율을 대폭 높여 가기로 한 것이다.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이 시스템이 전국에 정착될 경우 영농폐기물로 인한 산발적 방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은 국민생활민생행복제도 개선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충청남도 규제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영농 폐기물 집하장소를 정할 때는 5톤 집게차 진입이 가능하고, 전기집이나 케이블선이 없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 후 해당 읍면이나 환경보호과(940-4820)로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자!

WWW.DT.CS.ITD

아직도 종이고지서를 받고 계십니까?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

"모바일 전자송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신청대상: 지방세 납부 의무가 있는 분
-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 신청처: 읍·면사무소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안내서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 문의처: 042-880-8271

아산시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고지·납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7월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한다.

대상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이며, 금융사의 간편결제 앱과 금융 앱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 뜻하지 않은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새마을, 금융결

제일 등 금융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 부과 세목부터 적용되며, 여러 가지 앱으로 전자고지를 중복해 신청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전자고지 앱으로 발송된다. 다만, 앱 삭제, 핸드폰 변경 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및 고지서 발행 우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장미칠 패션 '레인코트'로 살펴볼까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은경) 패션잡화 편집샵 자파즈 매장에서 고객이 장미칠 패션 아이템인 레인코트를 살펴보고 있다. '아이엘드' 레인코트는 트렌치코트 스타일에 체크 패턴과 경쾌한 도트 패턴 등의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일상생활에서 바람막이 재킷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내달 14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송병배기자

“농산물 수급안정, 현장에서 답을 찾다”

aT, 2019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혁신워크숍 열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난 20일과 21일 전북 부안에서 aT가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사업에 대한 분석과 현장밀착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2019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aT 수급사업 담당자 100여명은 ▲농산물유통정보통합 시스템 구축현황 ▲35년 만에 부활한 국산 쌀 수매현황 및 밭산업 발전방향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 안전성 관리현황 등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미래과제 발굴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국내농업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심층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aT는 민간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가격불안 등에 대해 중국 대전에 수입정 보전담 과잉료위원을 파견하고, 현재 미

송병배기자

철도공단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 희망 나눔 활동 전개

아이들을 위한 물품 후원·교육봉사활동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는 지난 25일 꿈쟁이지역아동센터(대전 서구 소

제를 방문, 물품 후원행사 및 교육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원 20여 명은 여름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무선청소기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아동센터 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제 지도를 해주고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동센터 김정숙 센터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활동에 임해 준 철도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희광 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이구동성 추진단' 발대식 열려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25일, 천안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이구동성(二求同成) 추진단』발대식을 갖고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내 구직자들은 다수 대학이 소재해 고졸·초대졸 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 인력이 풍부하나 대부분 연고지인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천안·아

산권에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및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고졸·초대졸의 생산직 채용을 원하는 상황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따라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자는 의미의 『이구동성(二求同成)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구동성(二求同成) 추진단』은 기관 내·외부 협업을 통해 대전·세종·충청 광역 공동 채용지원 및 지역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산업 일자리 생태계 개선 활동, 구직·구인 발굴 등 채용지원 서비스 제고 활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지원 강화, 학습모임 등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권호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우리 지역은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구동성(二求同成) 추진단』이 관내 지역산업 일자리 생태계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및 구직자 발굴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직자를 모두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보령시 공고 제2019-112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안) 열람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하고 하위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0일

보령시 장

- 목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19. 6. 30. ~ 7. 15. (16일간)
- 공고방법**: 보령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형도면 고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 사유	지정 면적(㎡)	비고
충청남도 보령시 추암면 송학리 279번지 일대	충청남도 보령시 추암면 송학리 279번지 일대	용수로 인한 내수위험 높음으로 주민 주거지 및 농경지 등 중요 시설 수리	299,282	

- 지구 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시정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송학	2020~2023	18,144	· 용수로 인한 침수방지 · 높게: L=150m, 폭: L=2,000m · 특수모래층 · 특수모래층(1=100%) 우수관리 강(1=470m) · 우수관리용 콘크리트관 1구, 우수관도 1구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지)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7. 본개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안전총괄과(041-880-8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게재를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대로 26-30 대정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공주시, 세계유산 등재 기념 주간 운영

다채로운 문화·교육·학술·체험행사 마련



공주시(시장 김성섭)가 마곡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및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기념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3개소를 보유한 도시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오는 7월 6일과 20일 오후 2시 공산성 공복루에

서 토요 풍류마당을 개최하며, 충남역사박물관에서는 7월 9일부터 송산리고분군 일제강점기 사진 및 부령왕릉 발굴, 유물 사진 등을 전시한다.

또한, 7월 9일에는 백제문화유산 복원투어의 일환으로 송산리고분군과 국립공주박물관 일원에서 야간 투어행사 및 작은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 10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세계유산 마곡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7월 11일 오후 3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공산성 공연 관광상품 육성, 컬러 펜튼즈 개발을 위한 공산성 실경공연 콘텐츠 관광자원화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행사로는 7월 13일 공주대박물관에서 공산성 발굴 현장체험 등이 진행되며,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웅진백제문화 속 중국과 왜란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 희망찬 교육도시 만든다

‘아산 교육 비전 선포식’ 개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과 공동 주최로 아산 행복교육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산 행복교육 비전의 핵심은 '현재가 행복한, 내일이 희망찬 교육 도시 아산'이며 '아산의 미래, 교육으로 통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다 양성 및 개별성 중점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시의 역할과 민선7기 아산 교육 지원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다 폭넓게 요구되는 지지체의 역할을 공감하고 학교 중심의 교육에

서 가정,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협력해 학교교육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육지원으로 아산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 밝혔다.

교육지원 정책 방향은 스스로 앞가림 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인성 함양 ▲진로탐색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청소년 재단 설립 ▲진로코칭센터 운영 ▲청소년 시설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사업 확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6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제2차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행복청-7개 지자체, 대중교통체계 협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26일 행복청과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19년 제2차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권을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생활권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시, 천안시, 공주시

이를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급행버스체계(이하 BRT)를 운영해 오면서 내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사의 대중교통체계 고도화 추진 전략, 시스템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행복도시권 900번과 990번 BRT 이용객이 1일 1만 2500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년 1월 도입 예정인 내용량·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도,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개최

“비상사태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풀어야”



충남도가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26일 예산 덕산리수승파크 슬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임신·육아 부모, 산후부부, 미혼남녀, 청년, 종교·산업·사회단체 대표, 도의원, 시장·군수 등 각계각층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 저출산 극복 주요 시책 소개 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린 이날 대토론회는 양 지사 기초발언과 패널토론, 저출산 극복 공동 이행 협약 등이 1부 행사로 이어졌다.

기초발언을 통해 양 지사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가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같이치우며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강기정 백석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운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맹정호 서산시장, 지만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이수훈 당진 다세운 공동체 비즈니스 클 설립자, 부모 대표인 오형제 임마 김지선씨가 참가해 저출산 정책과 극복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은 양 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의 부위원장,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각 시장·군수, 대학 총장, 종교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회단체와 부모 대표, 청년 대표 등 18명

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국가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찾아 실천기로 약속했다.

2부에서는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분인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에는 정책현장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부모,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에 걸쳐 토론했고, 우선순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투표를 가졌다.

3부에서는 분인토론회 결과 정리·발표, 도시사와 토크콘서트, 참석자 공동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한편 도는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

고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충남형 더 행복 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도의 저출산 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교 무상급식 시행(8.59점)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8.57점), 임신부 배려 문화 확산 시책(8.51점), 종교 무상교육 지원(8.4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 높은 투자로 보육·돌봄(39.2%)을, 도가 설립을 검토중인 공공주택조리원 요건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41.2%)과 저렴한 비용(28.9%)을 꼽았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교사 등 인력의 전문성 확보(34.2%)와 돌봄 공간(시설) 확충(32.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라는 답이 63.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취업 시 지방대 졸업생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는 답은 22.1%로 뒤를 이었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 대상 구직 프로그램 운영(58.9%)이 가장 높았다.

김정환기자

당진시·전국 지속협

지속가능 발전 업무협약

당진시와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26일 당진시청 집견실에서 김홍장 시장과 김영진 상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지속가능 발전연수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기로 했다. 전국 지속가능 발전연수원은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당진시와 전국 지속협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교육과 연구, 컨설팅, 홍보분야에서도 협업하기로 했다.

이울러 두 기관은 UN 등 지속가능 발전 관련 국제 행사 개최와 참여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공동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홍장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가능 발전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제3회 당진 지속가능 발전 시민학교를 개강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도시 만들기에 돌입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미중물 차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내달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야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중소기업계 휴가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가정의 날 시행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령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무경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6대 정책을 제시했다.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 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를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김기분 중기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해 “내수 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치매인식개선 선도기관 지정

25일 대치면·수정초에서 각각 현판식 개최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은 지난 25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대치면사무소와 수정초등학교를 지정하고 각각 현판식을 가졌다.

수정초가 지정 받은 치매극복 선도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이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해 치매 파트너가 되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수정초 전교생과 교직원들은 충남광역치매센터 정지운 강사로부터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았다. 수정초 손용섭 교장은 “치매는 우리 사회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

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치매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경 의료원장은 “수정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의미있는 동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와 치매인식센터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치매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송정보대학, 대학-실무교육 특성화 부문 대상 선정

국가서비스대상 대학-실무교육 특성화 부문 2년 연속 수상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사진 오른쪽)이 26일 오전 11시 그랜드힐튼서울에서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9 국가서비스대상' 수여식에서 대학-실무교육 특성화 부문 대상에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

2019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사진

우송정보대학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공된 교육(Education)→선택하는 학습(Learning)', '고정된 System→유연한 Platform'이라는 변화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식 전환, 학습방식전환, 학생선택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학습플랫폼 구축의 전략을 수립하고 직업교육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창의적 실용교육에 충실한 명품대학을 지향하는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환경, 특성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망'으로 성장시켜 지역사회 혁신인재 양성을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전문대학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교육청, 단계별 조치사항·세부 대응방안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대책 마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예고된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 임금제한과 교육공무직 법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6월 25일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파업 관련 업무 처리 요령'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

대책에는 파업 단계별 조치사항, 직종별 세부 대응방안,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과 관련된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다수의 조리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도시락 미지급 학생의 경우 빵과 우유 등 완성품을 제공하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이동 지원과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김정환기자



이일용 청양소방서장, 명예로운 퇴임 33년간 소방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일용 청양소방서장이 26일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평생을 소방공무원으로 헌신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공적패 및 훈장이 수여됐으며, 행사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은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석별의 아쉬움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했다.



충남동부보호지청 호국보훈의 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전수식 충남동부보호지청(지청장 채순회)은 26일 오전 11시 호국보훈의 달 계기 독립유공자, 모범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국가유공자 증서전수식을 개최했다.



공주시, 안전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환)는 25일 오전 8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주교대부설초교 앞에서 학교장, 교사, 공주시청, 협력단체 등 60여명과 함께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회덕동 우리 동네 미식회, 저소득 독거노인에 영양가득 식사 대접 회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원후, 김형식)는 지난 26일 홀몸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외식합시다! 회덕동 미식회!' 행사를 진행했다.



유성구새마을부녀회 6월 새마을머리봉사대로 결연 어르신 돌봄 대전시유성구새마을회(회장 임재경) 산하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는 지난 25일 지회에서 각동에 1명씩 결연되어 있는 어르신 총 11세대를 위해서 밀반찬 3종(배추절절이, 우렁쌈장, 양파초절임)을 만들어 전달했다.



논산소방서, 재난현장 화재조사 합동감식 유공자 표창 논산소방서(서장 이두용)는 25일 부서 서장실에서 재난현장 화재조사 합동감식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유관기관 화재조사 합동감식으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 규명 향상 및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전기화재 발생을 감소에 공을 세운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남부지사 소속 권중두 주임에게 수여됐다.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무더기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731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수련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D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직된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출고실적 조사·확인을 실시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경상남도 거제시, 광주광역시도 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F, G, H.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면직된 J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정기검사 등 검사처리를 실시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업체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태안소방서, 소방시설 무상 대여서비스 운영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과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 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엑스포 한여름밤의 나들이 '달밤소풍' 보러 오세요

오는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엑스포 한빛탑광장서 개최



즐겁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흑서기 폭염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2019 엑스포 한여름밤의 나들이 '달밤소풍' 행사는 푸드트럭, 플라마켓, 놀이존, 포토존,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구성되었으며, 특히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하여 18:00~19:20까지 방문객 사연 및 신청곡을 접수하여 방송으로 소개하는 '별밤, 라디오로 전하는 우리 이야기'를 진행한다.

대전매케팅공사 최철규 사장 김태선기자

은 "무더위속에 지친 피로로 '달밤소풍'을 통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전발전의 해를 맞아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도토즐거움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야간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밤소풍'은 매일 18:00~23:00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와함께 15년만에 한빛탑을 리뉴얼하여 과학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엑스포다리 및 둔산 신시가지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빛탑 이용요금은 별도이며, 운영시간은 22:00까지이다.



'희망동행 프로젝트' 팀 발대식

대전지방교정청, 수형자 미성년 자녀 지원 위해 개최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청장 박병용)은 26일 대전청 소속기관 교정협의회장 및 희망동행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동행 프로젝트' 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교정위원과 사회단체, 교정공무원이 협력해 수형자의 미성년자녀에게 진로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천안교도소와 서산지소에서 시범 실시했고, 7월부터는 대전청 소속 10개 기관(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공주교도소, 충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서산지소, 논산지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시범기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희망동행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범기자

보령시,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단속 홍보 및 계도, 지도점검, 시설복구 등 단계별 추진



보령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의 불법행위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시설복구를 유도하여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오염지역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보호지역과 저수지 인근, 평소 폐수로 인한 반복민원 배출시설, 매립장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물론, 대천해수욕장 내 국도 77호 해저터널 공사장 방류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

오염에 영향을 큰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인다. 시는 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사후 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신고는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72)로 하면 된다.

보령=김정미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좋은(JOB)일 생기는 채용한마당

1:1 현장면접 진행·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채용 만남의 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지난 25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을 위해 '제6회 좋은(JOB)일 생기는 채용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충남지역 7곳의 유망기업과 구직을 희망하

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40여명이 참석해 1:1 현장면접을 진행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채용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 등도 함께 진행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채용한마당을 개최해 법무보호대상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응급구조학과 학생 구급차 동승 실습

아산소방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8명 대상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차 동승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교육은 응급구조사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 응급의

료 종사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습생들은 119구급대원과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환자의 평가 및 처치 등 구급대원 현장 활동 보조 ▲현장 활동 시 위급요인 등 주의사항 ▲주요 구급장비 및 기구 사용 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법과 관리 요령 ▲안전사고 방지요령 등 구급활동을 벌이면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아산=리광주기자

세종교육원, 학교교육 혁신의 길 모색

‘학습도시 세종, 미래 길을 묻다’ 주제로 세종교육포럼 개최

세종시교육원(원장 금융한)이 26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원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학습도시 세종! 미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교직원,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도시 세종’ 실현을 위한 ‘세종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교육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활동 지원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또한, 교육정책과 교수-학습에 대한 교원과 교육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전복대 박용용 교수가 ‘포스트휴먼시대의 학교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 인간과 동물, 기계의 관계성을 재해석하여 인간을 바라보는 포스트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적 교육과 학습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자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홍섭근 연구위원은 ‘5·31 교육개혁’의 배경과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강연 이후 분과발표에서 제1분과는 캠퍼스공동교육과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온기찬 강사가 ‘인지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제2분과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현혜정 장학사가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IB MYB)의 제주 공공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3분과에서는 세종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의 한희경 교육연구사가 ‘미래교육과 학교공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분과별 진행 축전자(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강사와 참여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분과 토론 이후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교육포럼에 참석한 세종시 한 교사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교육을 이해하는데 강연이 매우 유익했으며 특히 최근에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이슈에 대한 정보 나눔은 전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와 대전, 충남, 충북 등 타 시

도 교육정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세종시에서 최근 변화하는 학교교육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었고 각 시도의 연구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갖고 많은 연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한 원장은 “새롭게 단장한 세종교육원에서 전문가 강사를 모시고 세종교육가족과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들과 새로운 학교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학교교육 변화와 미래교육에 대한 진지한 생각 나눔을 토대로 ‘학습도시 세종!’이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 교육정책 포럼 개최

충남교육청 ‘미래와 교육에 관한 시선 그리고 사유’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원장 고미영) 교육정책연구소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빅데이터 활용 연구와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인권 연구의 일환으로 7월 2일과 4일에 각각 대회의실에서 도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와 교육에 관한 시선

그리고 사유’를 큰 주제로 ‘교육의 시선으로 바라본 빅데이터’와 ‘평화의 시대, 인권을 생각하다’ 포럼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 빅데이터 활용 교육 주제 발표는 충북대 조완섭 교수와 진주교육대 정영석 교수가 진행되고, 대전동대초 강명석 교사, 천안오성고 강성훈 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인권 교육 주제 발표는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이리고 현호 오동선 교사가 진행되고, 지정토론은 공주대 윤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교육정책연구소 박용주 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과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및 학교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 연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충남교육 미래 대비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기반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부여교육지원청, 부여마을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 개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윤학준)은 26일 부여군 평생학습관 3층 다목적실에서 부여군청 저지행정과장 남민현, 지역활동가 등 부여마을교육공동체(부여행복교육지구) 협의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행복교육지구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립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강생 모집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산학협력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교육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창업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이해를 비롯해 노인(老老)케어와 청년리더 과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교육은 충남도청과 충남도립대에서 이뤄진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거주자로서 예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팀이며, 창업자는 사회적 기업 영역 1년 이하야 한다. 충남도내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대학생도 가능하다.

청년리더 과정은 공고일 현재 만 40세 이하이며, 노인(老老)케어 과정은 전현직 병원관계자 및 보건지소장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창업지원교육센터(041-635-6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삼범기자

‘역사·예술이 함께하는 감성체험’ 지원

아산교육지원청, 초등 21개교 5·6학년 대상으로 지원



아산교육지원청(조기성)은 지난 25일부터 7월 24일(수)까지 초등 21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예술이 함께하는 감성체험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감성체험프로그램 운영 취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함이다.

‘역사·예술이 함께하는 감성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적용되는 역사교육을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조사 및 관람을 통하여 암기식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되는

에바 알머슨 화가의 작품 감상을 통해 소소한 일에서 행복과 사랑을 찾는 따뜻한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이번 ‘역사·예술이 함께하는 감성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월랑초등학교 문00 교사는 “우리 지역의 인, 물, 정을 활용한 감성체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지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자료 이용 편의성 높이고자

태안교육지원청 태안도서관(관장 정성택)은 지난 24일~25일, 안면중 도서관으로 직접 가서 학교도서관 장서 10500여권에 대한 장서점검을 지원했다.

이번에 나간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지원은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자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인면중학교에서 협조를 요청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에서 직원들이 학교로 가서 장서점검을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장서점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지원을 통해 추후에 직접 학교에서 장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학

교에서 진행하는 장서점검의 절차대로 진행했다.

도서관 직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책(바코드를 한 권씩 찍으며 소장자료 현황을 파악했고, 담당 선생님에게 후 데이터를 처리 방법을 설명하며 전체적인 장서점검 방법을 알려주어 학교도서관 소장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더해 정성택 관장은 직접 신간 도서의 위치, 자료실 서가 구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주기도 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홍성교육지원청, 2019 참학력 공감 콘서트

“우리아이 행복한 미래 아하, 충남 참학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지난 25일 홍성군 학부모와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교육감과 홍성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학력 공감 콘서트’를 홍성문화원에서 실시했다.

참학력이란 ‘튼튼한 기초학습의 토대 위에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삶의 길을 찾고 달콤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키우는 교육’을 말한다.

더운 여름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여는 미당(현악 4중주)’으로 시작된 참학력 공감 콘서트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하 교육감이) 첫 특강을 해주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아하, 충남 참학력!’을 주제로 30분간 미래 사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충남 참학력의 지향점에 대해 강의 하였고, 강의 후 깜짝 행사로 ‘참학력’ 삼행시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두 번째 특강은 ‘노래하는 교장’으로 유명한 방승호 교장(이현산업정보학교 교장)이 이어갔다.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마음에 말을 걸면 꿈이 화답한다’를 주제로 자녀 행복 교육에 대해 강의하고, 학부모와 공감 토크도 이어갔다. 강의 중간 중간 직접 통기타를 연주하며 자작곡도 불러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집필한 ‘삼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2019)’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홍성교육지원청 주도연 교육장은 “이번 참학력 공감 콘서트는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들 모두가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 교육에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산초 병설유치원, 신나는 과학체험 서산초 병설유치원(원장 안덕원)에서는 지난 25일 전 원아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과학체험마당을 예체관에서 실시 했다고 밝혔다. 과학체험마당은 학부모 참여수업의 일환으로 원아생 61명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3D 가상체험, 아빠와 힘겨루기, 신기전, 받아라 물총놀이, 나는야 천하장사, 자전거 발전기 등 13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직접 조작해 보고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우리가 교통안전 박사예요”

공주정명학교, 충남도교통연수원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공주정명학교(교장 백옥희)는 지난 25일 전교생 90여명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강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교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PPT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이용한 이론 강의와 모형 신호 세트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이뤄졌다.

이론 강의에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인 횡단보도, 이면도로, 사각지대 등에서 더욱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설명하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5원칙인 ‘선다, 본다, 손을 든다, 건넌다, 를 항상 습관화하도록 강조했다.

실습교육에서는 모형 신호 세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체험활동도 실시해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공주=정삼범기자

대전복지관, 초록우산 부모교육 실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은)은 지난달 29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바깥집 부모관 확립 및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펜타부라운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록우산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초록우산 부모교육 기본과정 4회기 과정으로 ‘부모의 의

미’, ‘부모의 역할’, ‘사랑하기’, ‘가르치기’를 주제로 부모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워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부모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줬다. 특히 부모로서의 기쁨과 어려운 점에 대해 학부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 놓으며 총 4회기에 걸쳐 열띤 교육이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지역

태안군 '충남형 해양치유 산업화' 앞장

우리/동/네

동정

시정브리핑



오세현 아산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민선 7기 1주년 시정브리핑'에 참석.

전환 전국포럼



김홍장 당진시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저출산 대응 시정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 오후 2시 한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회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포럼에 참석.

간담회



김기재 당진시의장은 27일 오전 11시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의정동우회 간담회에 참석.

농촌 체험교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7일 오후 1시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년 태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위한 도시민 농촌 체험교실'에 참석.

농업인 교육



김동곤 청양군수는 27일 오전 10시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에 참석.



청양군 CYS-Net 운영위원회 회의 열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4일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준 청양부군수)를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양군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경찰서, 1388청소년지원단, 보령고송센터, 공주보호관찰소 관계자와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원 위촉장 전달, 상반기 운영현황 및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동주 승의수련원장은 "위기 청소년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위원장은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지급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필수연계기관 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자"고 주문했다.

청양=정성범기자

25일 천리포 수목원 에코힐링센터서 '충남형 해양치유 산업화 위한 관계자 워크숍'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25일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에서 충남도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을 비롯, 군 관계자, 충남도 연안시·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해양치유 산업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태안군이 주관하고 충청남도 주관인 이번 워크숍은 충남도내 연안 지자체의 해양치유산업 현안사항을 토론했고 정보를 공유해, 충남 해양치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송수현 태안군 해양헬스케어팀장의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충근 박사의 '해양치유 산업의 이해 및 발전방향' 강연, 충남형 해양치유 산업화 추진방향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해양치유자원 피트를 활용한 임상시험장 및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대상지 탐방 등을 통해 태안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소개하며 '해양치유산업 중심지 태안'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산업은 태안의 우수한 해양자원 등을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해양치유의 새로운

모형 발굴에 태안군이 앞장서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헬스케어 산업은 해양의 기후와 지형, 해수, 해조류, 소금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것으로, 동서남북 4면이 바다에 접한 태안에 최적화된 미래 사업이다.

특히 군은 지난달 가세로군수를 포함한 군 관계자들이 해양치유산업의 선진국인 독일을 찾아 해양치유 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진 해양치유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하는 한편, 태안의 염치하수 및 갯벌, 피트 매장량 조사를 통해 치유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및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는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안=김정하기자

당진시 시민 생명 보호 위해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대

도시지역 닥터헬기 운영·지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당진시가 올해 들어 시민들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확대해 나서는 공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는 이달 말까지 송악문화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4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추가 설치된다.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실세동이

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전기로 충격을 줘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응급기구로,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당진 지역에는 시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모두 123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

장소와 대수를 늘려가는 중이다. 한편 당진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외에도 닥터헬기 인계점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월하게

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배방읍 마을의제 찾기 100인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참여를 넘어 주민 주도, 모두살기 좋은 마을'로 슬로건을 내걸고 배방읍 마을의제 찾기 100인+ 프로젝트(이하 '마을의제') 참가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마을의제는 우리 동네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장으로 오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매일 오후 2시부터 배방농협 본점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마을의제는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배방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생활 기반시설 등 다양한 주제로 배방읍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와 차별화되는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을의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를 계층별로 구분해 ▲8월 6일, 청·장년 ▲8월 7일, 중·고등학생 ▲8월 8일, 초등학생과 학부모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마을의제는 참여자 설문 실시 후 관심 의제별로 모둠을 나눠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원탁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해법을 찾아

록 진행한다. 시는 마을의제를 통해 도출된 지역 현안문제 해법을 기반으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예정인 배방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

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배방읍 주민으로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041-545-5900) 또는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624)에 직접 방문하거나 e-메일(jm920614@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가 아닌 일반 주민에게도 참가의 기회는 열려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www.wasan.go.kr),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aanmb.kr)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의제를 시작으로 관내 읍면을 순차적으로 매년 개최해 다양한 지역현안과 토론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건물번호판 배달·부착 서비스 호응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주민들을 위해 건물번호판 배달·#8228: 부착 서비스를 시행, 주민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 규정에 따르면, 신축 건물 등은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한 뒤 건물번호판을 받아다 건물에 부착해야 한다.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시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당진시, 지난 25일 토론회 열려... 시민의견 정책에 반영

당진시립도서관이 지난 25일 오후 2시 당진 중앙도서관 영상강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홍장 시장과 교육청 관계자, 작은 도서관 명예관장들을 비롯해 당진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작은 도서관 정책 이슈와 방향', '삶을 지원하는 공간, 도서관'이라는 두 가지 주제 강연에 이어 경기도 파주시와 서울시 마포구의 작은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이번 토론회의 주제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질문과 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진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과 시민들이 바라는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공공 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홍승선 당진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지역에는 모두 10곳의 시립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군수실' 호응

태안군, 민원인들의 고충민원과 애로사항 청취

태안군이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호응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가세로군수는 지난 25일 원북면을 찾아 '현장군수실'을 열고 민원인들의 고충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군수실'은 군수가 직접 군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듣고 필요 시 해당 현장을 방문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원북면에서 열린 '현장 군수실'에서는 ▲방갈포 1반 행정구역 협의 ▲충원저수지 준설 ▲갈두천 범람지 하천 정비공사 등 다양한 지역 민원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세로군수는 "군민들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직접 소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는 '군민이 행복한 공공소통 및 감동행정'을 구울 위해 신속민원처리과 내에 '민원군수실'을 설치해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군정을 실현하는 한편, 현안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 현장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태안=김정하기자



아산시 주택과 직원 청렴·친절교육

아산시 주택과는 6월 25일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와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 및 친절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신성철 주택과장 주재 하에 전 직원이 참여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과 방문 및 전화민원 응대요령 교육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신성철 주택과장은 "공공주택주 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가족누리센터 올 연말 완공 목표 추진

서천군, 지난해 말 신축공사 시행사 선정... 올 4월 용역 체결 거쳐 지난달 파일공사 착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시설 집적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건립 사업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 8월 행정자치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이름을 올리고 특별교부세 4억5천만 원을 확보해 복지 서비스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군은 지난해 말 '다들 함께 누리는 가족누리센터' 신축공사 시행사 선정과 올해 4월 건축·기계 상주 감리 용역 체결을 거쳐 지난달 서천읍 군사리 55-6 일원 구 서천역 부지에서 파일 공사를 착수하며 건립 사업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총 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713.34㎡,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가족누리센터는 육아, 결혼,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및 복지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센터 내에 시니어클럽과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들어서며, 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과 수영장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까지 파일공사를 완료하고 오수처리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 착수, 11월 방수공사 및 장호공사, 12월 천정 및 급속공사를 추진해 올 연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군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올해 말까지 가족누리센터를 건립하고 국가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 농어촌 지역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도안면 용동리 밀목재 사면공사 준공

계룡시, 통행안전 확보·쾌적한 도로환경 위해 추진

계룡시가 통행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추진한 밀목재 정비사업을 최근 준공했다.

신도안면 용동리 밀목재 사면은 지난 2017년 7월 암반 풍화·붕괴로 낙석방지담 등이 파손돼 추가 낙석 방지를 위한 비닐 덮개 등을 설치해 안전 조치를 해왔으나,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해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4개월여의 공사 끝에 밀목재 일원 660m의 사면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동안 통행 불편에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日 단남케이بلTV 요시다 토키오 사장 부여 홍보 앞장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 지역 백제교류협회(코시노미야코)의 민간단체 활동을 주도하는 단남케이بلTV사 요시다 토키오 사장이 부여

군과 우호협력 문화관광 체결 10주년을 맞아 부여를 알리는 노래 '부여연가'를 제작하여 7월 1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발매한다.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 지역은 1500년전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전래받아 현재까지 일본 국내 최대 전통공예의 집적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 노래의 작사는 요시다 토키오 씨가 했으며 작곡은 일본 가수협회 대표이사 고우다 미치히토 씨가 맡고 노래는 일본의 엔카 국민가수 노지 유키코 씨가 불러 곡을 완성하였다.

또한 요시다 사장은 애뜻한 부여

사랑으로 그동안 부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부여의 대표 유적지 및 전통시장 등을 배경으로 영화를 2편이나 제작하여 일본 국내 상영은 물론 유엔에서 개최하는 세계평화영화제에 출품한 바 있어 일본 내 진정한 부여 알리미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편, 요시다 토키오 사장은 제17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기 위해 5일 부여를 방문하고, 7월 6일 19:30분부터 부여서동연꽃축제 주무대에서 '부여연가'를 일본 가수 노지 유키코 씨가 백제가야금 연주단과 협연한다.

요시다 사장은 이 노래로 부여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애정곡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최근 한·일 국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 차원에서 따뜻한 우호협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논산시 식중독 예방 위한 집합교육 실시



천안시 지방세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하세요

내달부터 카카오페이 등 통해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시행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천안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 위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전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는 기존 위택스와 은행, 금융결제원 앱에 이어 추가 확대한 것으로, 개인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는 6월말까지 7월에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대형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중독예방관리와 급식 위생 관리 요령, 식품위생법령 등 많은 사업들이 모이는 시설에서 지켜져야

할 다양한 위생관리법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계층이 이용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중독 증상으로는 설사, 오심과 복통, 발열, 구토 등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 ▲음식물 익혀먹기 ▲손씻기 ▲날 음식과 조리된 식품 각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서는 여러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민원인 불만을 차단하고, 향후 중이고 지서 발송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욱 세정과장은 "앞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을 적극 확대해 민원인들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69주년 6·25기념행사 개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보의지 다짐 함께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 감사하는 시간 가져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5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6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25전쟁유공자회 논산시지회(지회장 이영노) 주관으로 제69주년 6·25전쟁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황명선 논산시장은, 김형도 도의원, 오인환 도의원, 김진호 논산시의회위원장, 장창우 논산경찰서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의식을 되새기며 엄숙하게 진행했다.

식전 안보교육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유공자 소개,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6·25 노래 합창과 만세 삼창 등 6.25전쟁이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송고히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논산시 관내

보훈단체인 광복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전쟁유공자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 지리해 6.25전쟁의 의미와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69년 전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호국영령과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한반도 평화야말로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믿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 등 국가유공자 지원은 물론 국가유공자에 유분위 조성 위한 보훈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6·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 열려

서천군, 호국영웅 희생 및 공헌 되새겨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지난 25일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6·25전쟁유공자회 서천군지회(회장 박봉춘)의 주관으로 참전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행사와 6·25전쟁유공자회 7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결의문 채택,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위국헌신의 노고를 위로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6·25전쟁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영웅이다"라며,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6·25전쟁 호국영웅 전우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역 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매달 또는 수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부여군 6·25전쟁 기념식 거행

부여군(박정현 부여군수)은 지난 25일 부여군유수호스텔 실내경기장에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군민, 학생, 군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호국영웅가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위훈을 널리 알렸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날 기념사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참전용사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가능하였다"며 "참전용사의 높은 공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작년에 이어 충남유수호산업조합 부여군지부에서 고령의 6.25전쟁 유공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택시로 자택과 행사장을 왕복 송영하여 주었으며, 오전 중에 열린 2부 행사로는 위로 공연 프로그램으로 참전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내포제시조창, 전자 바이올린 연주, 색소폰 연주, 노래공연 등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주었고 의경 어머니회와 호국부녀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음료 봉사 및 오전장에서 식사 도우미역할을 하여 기념식에 참석한 6.25전쟁 유공자들의 노고와 공훈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Event list including '동정 개회식', '군정 희망의 대화', '농업회의소 2차 설립추진단 회의'.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의 유료회원제 운영

유료회원 가입 시 기획공연 40% 할인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은 유료회원제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으로 계룡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은 관람객 확보와 공연의 질적 향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료회원제는 정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면 계룡시에서 기획한 공연에 한해 티켓 가격의 40%를 1인 2매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정당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룡시의 연간 기획공연은 평균 12회 가량으로 통상 관람료가 1만원에서 2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유료회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 정도를 절약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회원가격은 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기획공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전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료회원제는 우수한 문화예술 공연을 시민들이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준비하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042-840-3703)로 문의하면 된다.

Advertisement for the Cultural Arts Center membership program,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우리/동네

금산군-㈜맥키스컴퍼니
장학기금 조성 업무협약 체결



금산군은 지난 25일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맥키스컴퍼니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산군 내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이제우린'은 방당 5원의 장학기금이 적립된다. 매년 500만원씩 향후 10년간 총 5,000만원의 장학기금이 금산군에 기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달 동안 추부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 3000만원, 익명의 후원자 3000만원,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장 100만원 등 장학기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은 현재까지 134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올해부터는 '학부모아카데미'와 '1대1 대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대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주연기 기자

금산=김정환 기자

민선 7기 금산군정 1년, 금산발전 잠재력 촉발시킨 한 해로 평가

“잠재력 확장·성장동력 기반 마련”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출범한 민선 7기 금산군정 1년은 금산발전의 잠재력을 촉발시킨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세계중요 농업유산 등재, 제3기 지역균형발전 사업(13개 사업, 81억 원), 국도비 예산확보(142건, 1822억 원), 금산인삼축제 역대 최고 성적 등 역동성이 힘을 발휘했다. 여기에 금산인삼 세계화 명품화, 농업 선진화, 거점형 종합개발, 명품관광, 인재육성, 우량 기업유치, 복지 안정화 등 삶의 질 변화를 꾀함으로써 기대치를 높였다. 열린 군수실 운영을 통해 소통문화를 확산시켰고, 새벽 현장행정, 군민소통위원회 및 군민감사관 운영 등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인삼약초 분야다.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대한민국 인삼종주지

의 위상 및 국가대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주요 인삼소비국을 중심으로 해외 홍보마케팅이 펼쳐졌고, 오는 7월초에는 프랑스를 방문, 금산인삼 유통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산 농어업을 대표하는 혐의기구 '금산군농어업회의소' 창립은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 기획, 실행, 평가, 책임지는 진정한 협치 체계로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금산군의 대표적 효자작업인 깻잎은 3년 연속 5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고,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역시 군민들의 자존감을 지켜냈다. 총 245억원이 투입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금산읍 도시가스 70% 달성, 마을 무선안대 시스템 100% 구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6개 지구

385억 원),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 정비사업(6개 지구, 133억 원) 등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익에 힘이 실렸다. 올해도 금산인삼축제의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 관람객 97만 여명, 988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 5월 금산군의 축제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재)금산축제관광재단이 출범함으로써 글로벌 인삼축제의 기틀이 다져지게 됐다. 재단은 금산인삼축제를 세계인이 함께 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함께 창의적·차별화된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은 금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더욱 확장시켰으며, 작은영화관 금산시네마 운영(5만4452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금산자치총합대학 등도 군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만족시켰다. 금산군치매안심센터 신속 역사 보건서비스의 집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로 다가섰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사업은 작년 12월 ㈜경방신약과 5필지 24,018㎡ 신규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대전의 우량기업 ㈜다우에프에스 및 ㈜토음과 입주계약을 맺었다. 군청 지역경제과 내에 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작년 9월에 개설해 지속적인 구인 업체 발굴 및 구직자 상담·알선을 추진한 결과 172건의 면접을 알선하고 39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졌다. 25개 점포가 입주한 금산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도 맛과 멋으로 입소문이 번지면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 곳 금산시장 일원은 주차 및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총 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필리핀으로 한정됐던 초중생 어학연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3개국으로 다변화를 꾀했다.

통정

신바람정책특특(여성정책) 토론회

김정섭 공주시장= 27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신바람 정책특특(여성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취업 1주년 언론인 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 27일 오전 10시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민선 7기 취업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참석.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취임식

맹정호 서산시장= 2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총회에 참석, 오후 3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지진 대응훈련에 참석, 오후 4시 30분 폰타니노호텔에서 열리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간담회에 참석.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식

문정우금산군수= 27일 오후 2시 금산읍사무소에서 열리는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식에 참석.

제2연평전 북한상국 상사를 기린다

보령시는 26일 오후 무창포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인근에서 김동일 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전전 북한상국 상사 홍상 제작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의 포탄과 불길 속에서 산화한 참수리 357호 정 의 조타장 한상국 상사를 기리기 위해 홍상을 제작하고 제막식을 가진 것이다. 기념식에는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경과보고, 내빈 및 유족대표 인사, 제막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해군 의장대 근엄대가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번에 제막된 추모비는 ㈜보창산업 권혁영 대표가 6000여만 원을 들여 제작해 기부한 것으로, 비신(몸돌)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2.7m로 화강암과 남포포석으로 제작됐다. 북한상국 상사는 1975년 1월 31일 보령시 웅천읍에서 태어나 1995년 2월 7일 해군에 입대했으며,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임무수행 중 적함과 교전으로 장렬히 전사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최초 4강으로 국민들은 영광의 도가니였지만,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는 우리 대한의 남아 6명이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상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송고한 희생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한상국 상사를 기리면서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 기자

공주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출범... 소통행정 박차

시민대표 100명 선발, 향후 2년간 5개 분과서 활동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오는 7월 1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시민들의 주도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담당할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조중범 시민소통담당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주시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06명의 시민이 신청했으며, 이들이 성별과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한 뒤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100인의 위원을 선발했다.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52명, 여성 48명,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41명, 동지역 거주자가 59명이었고, 연령별로는 10~30대 24명, 40~50대 44명, 60대 이상이 32명으로 나타났다. 100인의 위원은 앞으로 △시민·자치 분과위원회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경제·도시 분과위원회 △교육·복지 분과위원회 △안전·환경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앞으로 2년간 시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특히, 출범식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민선 7기 지난 1년간의 평가 토론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이 평소 생각해 온 시정 방향에 대한 의견과 대안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중범 담당관은 "앞으로 2회 정기회의를 비롯해 분과별 회의들 수시로 개최해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속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생각이 객관적인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2019년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서산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현경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간부, 주무담당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발굴한 50건의 규제개선과제 및 25건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는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 범위 확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범위 확대 ▲지역생산 농·특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확대 ▲시민에게 환원되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자동차 매매업 허가기준 완화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증액 지원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미세먼지 공동 대응 등 대기질 개선 노력 ▲대형 폐기물 배출품목 현실화로 시민 편의 제고 ▲화물차 중량 무요측량 서비스 연중시행 등의 부서별 우수과제 공유로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지름이 됐다. 시는 발굴된 규제개선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다각적 방법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서산=김정환 기자

내달부터 시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 시행

보령시, 별도 신청 없이 주소 등록자 혜택
가구당 매월 최대 8845·기업은 25만 원 감면

보령시가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한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했으며, 보령시의회 등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 추진 세부 사항 협약을 거쳐 내달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했으며, 보령시의회 등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 추진 세부 사항 협약을 거쳐 내달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공주시 무료경로식당 증축 개소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5일 공주시여성회관 1층을 증축해 조성한 무료 경로식당의 개소식을 열었다. 무료경로식당은 연면적 182.6㎡ 규모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 식사공간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고 대

금산제면면, 여름철 폭염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및 교육

금산군 제면면은 25일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함께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 중인 경로당을 직접 방문, 안전점검 및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및 냉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한 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위건강수칙, 예방수칙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렸다. 제면면은 6월 말까지 34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 폭염을 대비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산=김정환 기자



공주=정성범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미(이채영 분)는 대성(김기리 분)이 동영상을 보내며 급히(이영은 분)와 있었던 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분노한다. 한편 영심(김혜옥 분)은 명자(김예령 분)를 집에서 낚고, 상미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제니와 송아가 우연히 만난 사실, 제니가 송아의 집에 방문한 사실까지 모두 알고있는 만수. 만수는

수진에게 협박 문자 속 송이를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 송이는 경인을 통해 웃을 만들어준 연희가 제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은석에게 제니의 행방을 알리는데...

▲절대그이 (SBS 오후 10시00분)



"너한테서 반드시 떼어 놓겨야" 홀종현 각성! 왕준은 영구의 정체를 수상히 여기며 영구를 의심하고 다다에게 단단히 이르는데... 한편 은종의 계약으로 궁지에 몰린 왕준은 결국 다다의 집에 피신하게 되고, 그리하여 졸지에 다다, 영구, 왕준은 3인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케이블 영화

▲더 이퀄라이저 (OCN 오후 5시50분)

"밥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로버트 맥클렌필(워싱턴).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이 시간이면 그는 늘 책 한 권을 들고 카페로 향한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는 아내가 남기고 간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00권'을 모두 읽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어린 홀혈 테리(클로이 모레츠가) 말을 건넨다.

"무슨 책이에요?" "...기사의 이야기지.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사는."

"내가 사는 세상과 똑같네요..."

무료하게 전화를 기다리다 벨이 울리면 대가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는 테리와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던 로버트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가까워진다. 그러던 어느 날, 테리가 포주인 러시아 마피아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채로 발견되자 세상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고만 로버트는 마침내, 감자 에센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이 세상을 향해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엑스맨퍼스트클래스 (채널CGV 오후10시30분)

찰스 자비에와 에릭 렌서가 각각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라는 이름을 얻기 전 1960년대 '병진 시대'.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라 유전자학을 공부하는 찰스는 자신에게 특별한 텔레파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돌연변이'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주변의 금속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에릭을 만나 절친한 친구가 된다. 반면, 인류를 지배하려는 집단 '헐파이어 클럽'의 수장 세바스찬 쇼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정을 도발해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CIA에서는 찰스와 에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세계 각지를 돌며 때론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차별 받는 돌연변이들을 규합하고 '헐파이어 클럽'에 대항하는 엑스맨 팀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돌연변이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찰스와 달리, 에릭은 전쟁 중에 일어난 비극적인 과거사로 인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이들의 우정은 서서히 흔들리게 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대전시티즌-동건종합건설(주),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티즌과 동건종합건설(주)이 26일 대전 선화동에 위치한 동건종합건설(주)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17년부터 대전시티즌을 후원하고 있는 동건종합건설(주)은 이로써 3년째 대전과 동행하게 됐다. 후원금액도 상향했다.

내역 힐데스하임잡종은'을 선보이는 등수도권 사업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부 노후 주택 보수, 사랑의 연탄 기부, 기초수급자 영유아용품 지원, 효문화마을 CCTV 설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동건종합건설(주) 이홍재 대표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 지역 시민분들이 시티즌 경기를 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전시티즌 최용규 대표는 "후원에 감사드리며, 구단의 가치를 높여 스폰서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경환기자

트럼페터 성재창 리사이틀 공연



2019 아침을 여는 클래식 다섯 번째 순서인 트럼페터 성재창의 공연이 내달 9일 오전 11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린다. 감성을 깨우는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과 핀란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뛰어난 곡 해석과 테크닉, 다채로운 음색으로 동아 음악콩쿠르, 제주 국제 관악콩쿠르 등 각종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수원시립오케스트라, 아일랜드 아이리쉬 체임버 오케스트라, 서울 바로크 합주단, 대전시향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고정된 편성을 벗어나 솔로, 듀엣, 체임버까지 다채로운 편성의 연주를 들려주는 <앙상블 아리아에따>의 협연으로 이루어지며 오페라 아리아, 영화 OST, 재즈 등 듣기 편하고 감미로운 곡들을 연주한다. 문의 042-270-8137/8142 송병배기자

아산시, 저소득 미취업 장애인 무료이동 건강검진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24일 평소 거동과 이동이 불편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미취업장애인 2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무료 이동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검진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산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1인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해 수급자 편의를 위해 이동 출장 및 내원검진을 실시했으며,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2차 검진 및 개인별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진행 된다. 이번 건강검진에서는 혈액검사, 혈액검사, 간기능, 당뇨, 혈액, 동맥, 심장근육, 신장, 간염 검사, 간염,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 유방암 등 각종 암 및 관절염 검사 등 2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아산=리량주기자

7월 7일 무대에 오를 '시민과 함께 노래하는 7030 희망의 합창'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이번 '시민과 함께 노래하는 7030 희망의 합창'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로, 시민합창단원을 모집해 함께 연주한다. 시민합창단원은 대전 거주 30년 이상인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을 거쳐 8월에 합창단원을 선정하고, 8월말부터 연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합창단에 지원하려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팩스로 접수하면

"7030 희망의 합창에 함께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7030 희망의 합창' 시민합창단원 모집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오는 9월 7일 무대에 오를 '시민과 함께 노래하는 7030 희망의 합창'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이번 '7030 희망의 합창'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선 아마추어 합창단원인 시민들이 전문 공연장 무대에 설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9월 7일 오후 5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무대에 오르는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울러 참가증서와 기념사진, 단체티를 제작해 연주회 때 착용하고 이를 본인이 소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합창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사무국 (042-270-8372-4)으로 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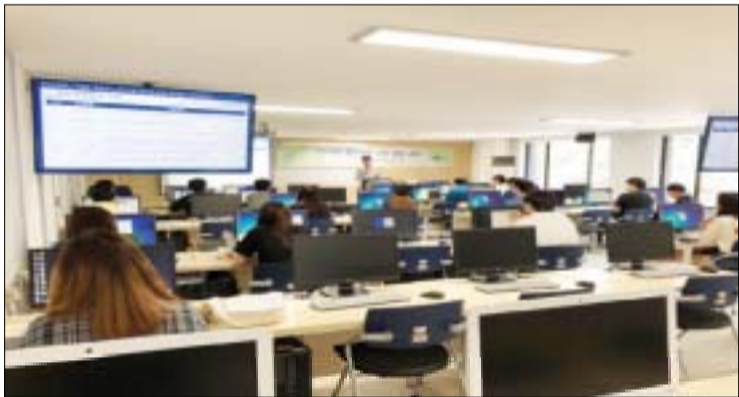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정중태 대전 서구청장, 2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사진 오른쪽> 대전 서구청장은 26일 서울 국회의원과관에서 열린 '2019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남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가 지키다"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학생 160명은 26일 오후 1시 30분, 독도에 올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Flash Mob)'을 진행했다.



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스마트의로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교육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목) 사이버보안공학과(학과장 김동원)가 24일부터 3일간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과 스마트의로보안포럼(회장 한근희)의 주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의로분야 정보보호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공주시 웅진동새마을회, 직접 재배한 '감자' 경로당에 전달
공주시 웅진동새마을회(회장 이명우, 김동순)는 지난 25일 휴경농지에 탐َّر 재배한 감자를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초연결 시대와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훈청, 현충시설 Boosters 발대식 개최
대한민국역사문화진흥원(원장 하현주), 대전청소년원센터(센터장 권부남), 유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양은일)이 주관하고, 대전지방보훈청이 후원하는 "현충시설 Boosters" 발대식이 26일 대전보훈공원에서 학생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포도 봉지 싸우기 일손돕기 나서 포도 재배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필)는 26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동구 이사동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포도 봉지 싸우기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충남본부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포도 봉지 싸우기 및 주변환경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종필 충남지역본부장은 "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곳에 지속적인 영농지원을 실시해 농촌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 부여 삼신보육원을 찾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와 대전 성모의 집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 오고 있다.

김태성기자



서산시 인지면 모월2리 마을회

어려운 이웃 위해 바자회 수익금 '캐척'

서산시, 인지면 모월2리 마을회(이장 강완철)에서는 지난 2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등 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주매자, 한명동)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인지면 모월2리 주민 160여명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썩어 있는 정원'에서 운영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지면 연합모금동장에 입금돼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행복드림 건강유료 지원, 「인지상

정 행복나눔미,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 지원 등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강완철 모월2리 이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동 인지면장은 "관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도움을 드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온양한울중, HUG센터 손끝사랑 봉사

온양노인복지센터 방문하여 손마사지 진행

온양한울중학교(교장 이창식)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HUG센터에서는 '손끝사랑 봉사활동'프로그램으로 온양노인복지센터 방문하여 손마사지를 진행했다.

이 날은 HUG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중 '네일아트반'과 '나도 요리사반' 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손마사지와 네일케어, 마들렌, 보리빵, 수박을 손수 준비해 어르신들을 만났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어깨 마사지, 핸드팩 헤드드리기, 말벗 해드리기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함께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다.

이번 '손끝사랑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어르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 실천을 위한 인성함양을

기르고, 청소년기 인식 개선으로 노인 차별을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특 biệt히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재능기부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자 실시한 봉사활동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오는 시간이었다.

염금자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일조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창식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리랑주기자

공주대학교, 전 직원 대상 특강 실시

원성수 총장 "행복한 대학 만들겠다"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원성수 총장은 특강을 통해 "행복한 대학 만들겠다"며, "공주-예산-천안캠퍼스가 하나 되고 결집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충남 유일한 거점대학교로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원 총장은 "직인 인사 원칙

정립 차원에서 적재적소 인력 배치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공주대 6월중 직장교육은 원성수 총장 특강에 이어 이윤국 임파워링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부정적 감성지능 이해 및 생활 속 실천하기' 정립교육을 실시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센터병원, 참전용사 초청 진료

에티오피아에서 온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두 분 초청



대전센터병원(병원장 권옥성, 이창환)은 지난 25일 에티오피아에서 온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두 분을 초청, 무료 검사 및 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대전센터병원을 방문한 참전용사는 페페라 테케텔(남, 94세), 벨라이 베켈레(남, 91세)씨. 한국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했으며 후자의 이야기를 담아 국내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위해 방한했다가 대전센터병원의 초청으로 무료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대전센터병원 대표원장 및 모든 직원들은 6.25전쟁 69주기가 되는 뜻 깊은 날에 두 분을 초청해 모든 참전용사를 대신해 감사를 표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검사와 진료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전센터병원을 방문한 두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7사단 소속 에티오피아 강능부대 소속으로 목숨 걸고 싸워 25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화성면주민자치회, 환경정화활동 전개
청양군 화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석기)는 지난 25일 화성면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황인호 동구청장 '2019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황인호 동구청장이 26일 '2019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대상·지방의회의장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우수 지자체를 선정, 표창했다. 구에 따르면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실현'을 위해 '관광 NO.1, 복지 NO.1, 도시혁신 NO.1, 안전 NO.1'의 가치를 세우고 1년 동안 매진한 결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 1년간 미래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관광산업에 매진한 결과, 제1회 대통령 벚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의 성과를 이뤘으며, 동구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으로 자리잡은 '나눔냉장고'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9일 행안부 인증 혁신센터에 등록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 상은 '신바람 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모태도시 동구가 대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인사

- ▲ 충남도
◇ 3급 승진 ▲ 농림축산국장 추욱 ▲ 기획환경국장 김진배 ▲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한정선 ▲ 제철세계군문화예술스포츠조직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윤동원
◇ 3급 ▲ 자치행정국장 정원준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중영 ▲ 인사과 구분봉 ▲ 인사과 박정주
◇ 부단체장 ▲ 보령시 정낙준 ▲ 서천군 이교식
- ▲ 대전시교육청
◇ 행정 3급 승진 1명
▲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 행정 3급(개방형직위) 연장임용 1명 ▲ 감사관 류준영
◇ 기술 3급 공로연수 1명
▲ 대전평생학습관장 박진규

- ※ 충남도·대전시교육청 인사본보 홈페이지 참조.

- ▲ 알림
▲ 제69주기 제20차 대전선내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 27일 오후 1시~2시 30분 산내 팔령골 임시추모공원(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 ▲ 부고 ▲ 이용석(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업무팀 상무)씨 모친상 = 26일 남성회 남 별세, 대전 나진요양병원 3호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대전정수원/봉곡동 선영

칼럼

지방의회 의원들 자기역할 제대로 해야



황선만 논설위원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지방의회에서 최근 각종 일탈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김중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은 프로축구 대전시디전 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조성철(민주당) 의원의 미국 출장 길에 의회사무처장과 의회 전문위원 등 직원 2명이 동행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식 밖의 행태를 보여 주었다. 박용희(자유한국당·미래)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 학원비 부담이 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개 석상에서 학원비 인상을 주문한 것에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박 의원은 조차원에서 5년 여간 학원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민주당)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제9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정포럼 참석차 몽골에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무려 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평균 한 달 만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부여군의회 A의원이 측근과 친인척의 사업에 권한을 이용, 부여군과 계약결제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조례제정, 행정

사무감사 등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 감시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통제 없이 일탈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지방자치이후, 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지방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의회건물유지비, 의회운영비, 의원회비, 의회사무처직원 인건비 등 많은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차체에 골에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무려 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평균 한 달 만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부여군의회 A의원이 측근과 친인척의 사업에 권한을 이용, 부여군과 계약결제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조례제정, 행정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의원들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언론도 그 중에 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은 소 동령, 의회의원들은 토호 세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선거 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시 감시자 역할을 해야 선출직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긴장하고 주민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많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의원들은 발굴해서 언론에서 부각 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무튼, 더 이상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하는 바램이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주민들이 짜증이 나고, 조금 있으면 무더위와 함께 짜증이 더 날 텐데, 선출직 의회의원들까지 짜증내는 일탈 행위를 멈추고 주민을 위해 농부처럼 구슬땀을 흘리기를 바란다.

칼럼

쪽방지역 실태조사(下)



원용철 벨엘의집 담당목사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으로 보일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쪽방과 주거취약층 1,884가구 중 578가구가 보일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난방인 가구는 721가구, 없는 가구는 527가구, 파악하지 못한 가구는 58가구였다. 비율로는 공동 보일러 30.7%, 개별난방 38.2%, 없는 가구 28%, 미파악 3.1%였다. 보일러가 없는 가구 중 370가구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145가구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2012년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을 통하여 쪽방마을 사탕나누기 사업을 통해 지원한 것이다. 보일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름보일러가 387가구이며, 연탄보일러가 106가구이며 개별난방인 경우, 기름보일러가 406가구, 연탄보일러가 154가구였다.

쪽방의 경우 1,611개 가구 중 공동 보일러 570가구, 개별 보일러 472가구, 없는 가구 515가구, 미파악 가구는 54가구였다. 비율로는 공동 35.4%, 개별 29.3%, 없는 가구 32%, 미파악 3.3%였다. 보일러가 없는 가구 중 362가구가 전기장판

을 사용하며 143가구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동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기름보일러가 381가구이며, 연탄보일러가 106가구이며 개별난방인 경우, 기름보일러가 285가구, 연탄보일러가 122가구였다.

임대 현황은 쪽방과 주거취약층 1,884가구 중 무보증금 월세는 1,643가구이며, 보증금 월세 160가구, 전세 157가구, 무료 및 무허가가구는 157가구, 파악하지 못한 가구는 51가구였다. 비율로는 무보증금 월세 87.2%, 보증금 월세 8.5%, 무료 0.8%, 전세 0.8% 미파악 2.7%였다. 주거비는 5~10만원이 140가구, 11~15만원 729가구, 16~20만원 603가구, 21~25만원 211가구, 26~30만원 74가구, 30만원 이상 15가구였다. 쪽방과 주거취약의 46%는 15만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32%가 16~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방의 크기는 1~3평 1,234가구, 4~6평 561가구, 7~10평 34가구, 10평 이상 4가구였다. 쪽방과 주거취약의 65.4%가 1~3평에, 30%가 4~6평에 거주하고 있었다.

쪽방의 경우 1,611개 가구 중 무보증금 월세는 1,470가구이며, 보증금 월세 77가구, 전세 47가구, 무료 및 무허가가구는 13가구, 파악하지 못한 가구는 47가구였다. 비율로는 무보증금 월세 91.2%, 보증금 월세 4.8%, 무료 0.8%, 전세 0.3% 미파악 2.2%였다. 주거비는 5~10만원이 1183가구, 11~15만원 637가구, 16~20만원 508가구, 21~25만원 188가구, 26~30만원 747가구, 30만원 이상 15가구였다. 쪽방의 47%는 15만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32%가 16~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방의 크기는 1~3평 1,213가구, 4~6평 364가

구, 7~10평 22가구였다. 쪽방의 75%가 1~3평에, 26%가 4~6평에 거주하고 있었다.

쪽방지역은 오래된 건물과 옛날 숙박업소를 월세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63.8%로 나타났다. 개인 34.8%도 오래된 여관이나 모텔에 붙어 있는 경우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주방이 없는 곳도 54.4%로 가장 많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관, 여인숙이 많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좁은 공간에 수도와 싱크대만 간신히 갖춘 열악한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세면실 경우에도 개인이 43.7%로 조사 됐으나 여관이나 여인숙을 제외하면 수도만 갖춘 곳이 대부분이었다.

난방 현황은 조사 가구 중 28%가 보일러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기장판이나 전기장판로 환파를 견뎌야 했다. 공동이나 개인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주자들이 비싼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여 보일러를 충분히 틀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지내는 가구가 많았다.

임대 현황에 관해서는 조사 가구 중 무보증금 월세가 87%로 월등히 높았고, 20만원 이하 월세 비율이 78%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쪽방 밀집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수급비를 받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내거나 비싼 월세가 부담스러워 환경이 열악해도 무보증금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무보증 월세인 1~3평의 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66%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대전역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쪽방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정동, 중동, 은행동은 경우 건물들이 대부분 6~70년대 세워진 건물들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보증에 싼 월세로 인해 주거 빈곤층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완벽한 건물이지만, 지금까지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주민보다 훨씬 많은 쪽방 주민이 존재한다는 것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쪽방과 주거취약이라는 경계가 너무 모호한 것도 새삼 절실히 느꼈다. 방의 크기, 임대료, 주거 환경 등 명확하게 주거취약과 쪽방을 구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거취약이나 쪽방 모두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공간이라는 노숙인의 정의 범주 안에 있기에 쪽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의 몇 배가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노숙인의 규모도 몇 십배 늘어날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1만명과 쪽방 6천 가구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이다. UN 적정주거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에는 비정주거 가구가 380만명으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조사된 자료에는 비주거 37만명, 본인이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인식하는 7만 4천 가구로 조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최소한 몇십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쪽방과 노숙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규모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방, 노숙인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총력을

해마다 여름철이면 말라리아 창궐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리곤 한다. 지금은 말라리아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사람의 피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열혈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 매개 질환이다. 전염 모기에 물린 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감염성 질환이다.

올해 들어 북한과 접경지역인 파주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여타 지자체들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 올해 들어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 지역 외에도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다.

말라리아 전염 모기인 일록날개모기는 주로 논이나 동물 축사, 습한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흑색의 중형 모기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어두워질 무렵 활동을 시작하며 새벽 2~4시께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국내 말라리아는 일록

날개모기 암컷에 의해 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열과 오한, 식은땀과 무기력증 등 마치 감기 증세와 비슷한 양상이 3일 간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일열 말라리아'로 불리기도 한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발한기가 48시간마다 반복되며 비중, 빈혈, 두통, 구토 등을 수반하고 열 발작 간격은 점차 길어져 1년 반 정도면 치유되지만 종종 재발하기도 한다.

보건당국은 여름철에 말라리아가 창궐하기 쉬운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이 지역을 여행하는 시민들은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을 입을 것을 권하고 있다. 반드시 옷지 말고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보건당국이 내리는 주의사항만 준수해도 얼마든지 모기를 퇴치하고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불명예스럽게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당국은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진력할 것을 당부한다.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여가문화 시행되어야

노인문제가 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의 욕구가 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걱정이 앞선다. 사실 노화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인생의 필연적인 한 과정이다. 요점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 때문에 노인복지대책을 잘 세운다는 것은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인 비노인층들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일찍이 그 우려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럽선진제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 대략 125년에서 60여년 정도 걸렸다. 그동안 가장 빨랐던 일본만 해도 25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가 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2018년도인 작년도에 14.3%를 넘어버렸다.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적절한 노인대책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노인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83세다.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다. 이에 비해 출산율은 부부1당 0.98명에 불과하다. 이는 곧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사회보장비 부담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이 같은 악순환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국가적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그 대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해야 한다. 물론 절대적 빈곤은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노인복지법 등 각종 복지법을 제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소화해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 층에서도 노인여가문화재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은 경제적 수입의 상실, 지위와 역할의 상실, 사회참여 기회와 상실, 보람의 상실 등 수많은 상실감을 안고서 살고 있다. 유병률 또한 나날이 높아져 간다. 즉, 오늘날의 노인들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노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노인들에게도 바람직하겠지만 이들을 모시는 가정에도 안성감을 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준 노인층이나 그들을 부모로 두고 있는 가정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노인들이 여가문화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길 바란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생활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비력소도 '생활'과 '여가'를 구별하지 않고 '생활자체'를 '여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젊은 시절의 생활이 '일' 그 자체인 것처럼 노년기의 '여가'는 그것인 '생활'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노후생활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노인들이 원하고 즐겁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창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현재에도 일부 노인복지관 등 노인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통해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여가문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전농협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토론회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는 26일 3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분석, 보완하고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업무부문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깨끗하고 공정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지원 ▲도시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풍년농사 박대식' 개최 ▲대전농·축협 '우수직원 소통 간담회' 실시 ▲농산물 계통이용·양곡·영농자재 사업목표 초과 달성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나타났고 있다.

인기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과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대전농협 임직원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전파를 위한 농민신문 보급 확대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조합원 가입 확대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 ▲대전지역 초동생과 함께하는 농촌문화체험 ▲대전농협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대전농협 택배사업 및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 등이다.

전용석 본부장은 "대전농협 임직원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하반기 사업추진에도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 전국최초 영농폐기물 수거전담반 운영

폐부직포·폐차광막·폐농약병 등 처리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최초 영농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운영,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다.

2인 1조로 구성될 수거반은 잔용 집적지(5톤)를 통해 청양군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폐부직포, 폐차광막, 폐농약병 등을 처리하게 된다. 군은 제조사 사용량 감소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사용 부직포, 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농업인의 경우 영농폐기물의 부피가 크고 무거운 탓에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군은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15년부터 마을별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22

곳을 설치하는 한편 영농폐기물순환센터(3210m)를 건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농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운영, 군내 영농폐기물 처리효율을 대폭 높여가기로 한 것이다.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이 시스템이 전국에 정착될 경우 영농폐기물로 인한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은 국민생활밀접 행정제도 개선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충청남도 규제혁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영농 폐기물 집하장소를 정할 때는 5톤 집계차 전입이 가능하고, 전직종이나 케이블선이 없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 후 해당 읍면이나 환경보호과(940-4820)로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 · 바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일내 042)538-1602	광고신청일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2392-5143		
인쇄처 : 동양인보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aco de Lucia 헌정음악회

스페인의 추억

플라멩코

바르셀로나 기타 트리오 & 댄스

본능을 자극하는 ————— 기타리듬과 춤 ————— 플라멩코의 모든 것



Barcelona Guitar Trio & Dance

2019. 7. 10^{WED} 7:30^{PM}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티켓 | VIP석 70,000원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아스노바 1588-8440 브라보컴 1661-1605

주최 | BravoComm 문의 | 브라보컴 1661-1605 www.bravocomm.co.kr